

투데이칼럼

노인 무료 급식비 현실화 필요

최근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연일 화제다. 넷플릭스가 정식 서비스 되고 있는 94개국에서 단연 1위를 차지하는 대기록을 세우고 있다. '오징어게임'의 인기는 과연 무엇일까? 빛과 생활고로 벼랑 끝에 내몰린 456명의 소외계층이 456억원이라는 일확천금을 놓고 펼치는 목숨을 건 게임. 자본주의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실보다 더 현실같은 이야기.

코로나9가 확산되면서 제대로 먹지 못해 영양실조나 결핍으로 사망한 소외계층이 340명이 넘고, 이중 절반이 80세 이상 노인이라고 한다. 소외계층을 위해 운영해오던 푸드뱅크, 무료급식이 중단되면서다. 임시방편으로 운영하고 있는 도시락은 1인당 단가가 3,000원에 불과하며, 이 단가에 도시락을 맞추다 보니 라면, 빵, 국수 등을 제공해 간신히 끼니만 해결 할 수 있는 정도로 지원이



장 영 수
장수군수

되고 있다. 매년 물가는 상승하고 식자재 가격도 오르는데 왜 노인을 위한 무료 급식 단가는 매년 그 자리인 것일까.

그런데 같은 급식지원임에도 아동 급식은 단가가 1인 6,000원으로 노인 급식은 단가보다 무려 2.4배 이상이 높다. 그동안 아동급식 단가는 꾸준히 상승했지만, 노인 무료 경로식당 급식은 2011년 한 차례 500원이 인상된 후 11년 동안 제자리걸음 중이다. 장수군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35% 이상이며, 그 중 독거노인이 10%를 차지하고 있는 고령사회 지역이다. 전라북도의 2016년 인구 10만 명 당 자살률에 따르면, 김제시 53.8명, 장수군 47.1명으로 전라북도에서 높은 자살률을 가진 곳이었다. 이러한 심각한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 '시니어클럽'이다.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 고독감과 외로움을 해소하고 동네 어르신들의 교류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9라는 팬데믹

상황이 되면서 독거노인 어르신들은 다시 고립되었고, 이제는 보다 더욱 세심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이에 장수군은 결심우려가 있는 독거노인 전수조사를 실시해 현재 430명에게 지원하고 있는 무료급식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며, 현재 1인 3,000원에 머물러 있는 급식 단가를 군비 지원을 통해 아동급식비에 준하는 금액으로 상향해 전북 최초로 저소득 노인급식 현실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장수군 농특산물을 노인 무료급식 식재료로 이용해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문제와 식재료 공급의 경영난을 동시에 해소할 방침이다.

누군가는 죽어야 끝나는 '오징어 게임'이 아니라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장수군을 만들기 위한 많은 관심과 대책,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할 때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시즈오카 보궐 선거 당선된 신노스케 야당 의원



이마지키 신노스케 전 의원이 24일 일본 중부 시즈오카에서 열린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후 꽃다발을 받아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기사다 후미오 일본 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치러진 2곳의 참의원 보궐 선거에서 자민당이 의석 1석을 잃어 사실상 지민당이 패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마드리드 시내 관통, 이동하는 양 떼



24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중심부에서 양치기들이 양 떼를 인도하고 있다. 마드리드에서 600년 전 양치기들이 겨울에 가축을 따뜻한 남쪽으로 이동시키던 풍습을 재현하는 '양 떼 이동 축제'가 열렸다. 마드리드는 과거 양 떼가 이동하던 주요 경로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설

골프기자 최영정과 가라데 최영의

극진 가라데 창시자 최배달(본명 최영의)의 동생이자 국내 1호 골프기자로 알려진 골프칼럼니스트 최영정씨가 지난 15일 향년 90세에 세상을 떠났다.

1931년 전북 김제시 용지면 외롭고 산장마을에서 태어난 고인은 전북대 농업경제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뒤 1959년 조선일보에 입사했다.

입사 당시 유도 3단이라는 그의 특기 덕분에 첫 기자생활부터 체육 분야를 담당하기 시작했다. 고인은 골프가 생소하던 1967년부터 골프 분야를 취재하면서 50여 년간 다양한 기사, 칼럼 등을 썼다.

대한골프협회 규칙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그는 다양한 골프 관련 서적도 남겼다. '골프 대특집(1981)', '골프의 세계(1987)', '19홀의 세미나(1991)', '40세부터 맨탈 골프(1994)' '골프는 세상을 바꾼다(1998)', '골프 왕국의 절대법칙(2000)', '한국 골프 인물사(2000)', '이것이 골프 매너다(2002)', '서울 CC 50년사(2004)', '유익한 골프 용어 정답(2007)' 등을 다작했다.

한편 그의 친형 최영의(崔永宜, 1922~1994)는 영화 '바람의 파이터'의 실제 모델이다. 그는 일본 전통 무예인 가라테를 변형한 극진가라테의 창시자다.

그는 전 세계를 돌며 콩쿠, 검도, 복싱, 카포에이라, 프로레슬링, 무에타이 등 각 분야의 실력자들과 싸워서 단 한 차례도 패하지 않았다.

일본에 건너가 활동했던 일본 이름은 오오야마 마사다츠(大山勝達)이다. 그는 일본 가라테계에서 신적인 존재로 군림했다.

또 다른 이름인 최배달(崔倍達)의 배달은 단군 신화에 등장하는 배달민족에서 따온 것이다. 그는 이미 9세 때 중국인에게서 소림 무술을 배웠다. 그는 역도 산의 스승이기도 하다. 최배달의 고향에는 친형 최영범씨가 살았었다.

어느 대선 후보의 사과 논란

어느 대선 후보가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으로 사과를 했다. 그러나 이것도 뒤늦은 사과였다. 특히 등 떠밀려 한 사과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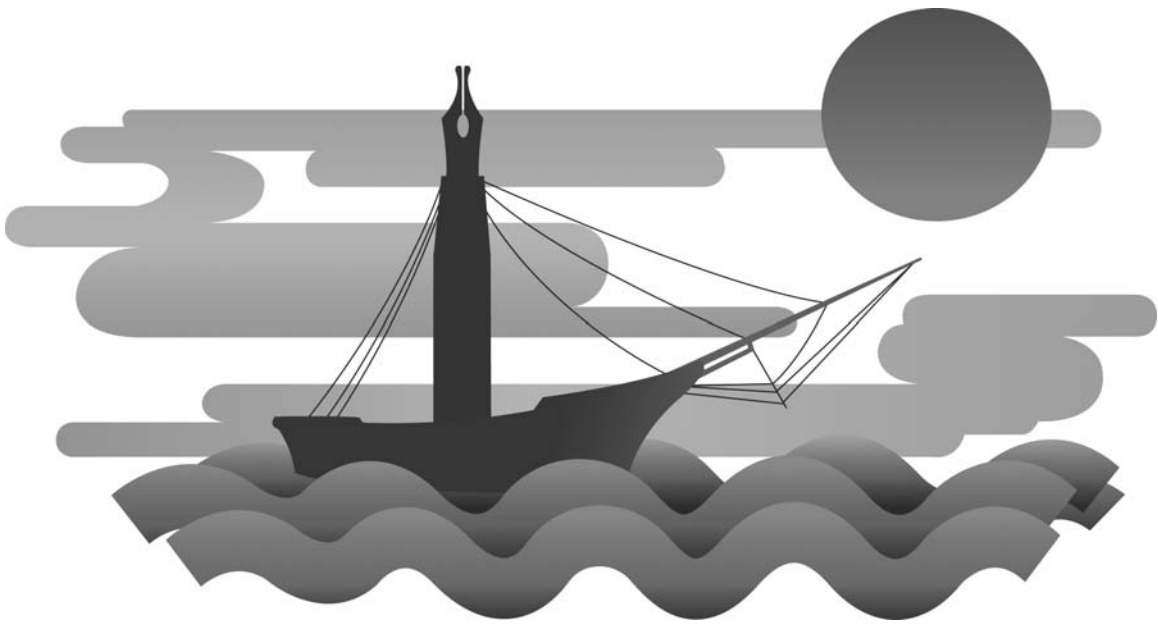
그는 유감이라는 표현을 처음에 썼다가 나중에 송구하다는 표현을 썼다. 전두환 정권 시절 군와 발에 짓밟히고 총에 맞아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많다.

그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그런 발언은 삼가는 게 옳았다. 누구나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 아픔을 공감하고 진정성 있게 소통하고 교류해야 한다. 마음을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인은 항상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 전두환 옹호 발언을 했다면 즉각 진정어린 사과가 필요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많다.

해당 후보를 물러싸고 실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부분은 당 차원을 넘어서 캠프 차원에서도 일단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 먼저 참모진부터 후보에게 진언하기 바란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